



일본 사무라이본드 발행 사상 최대치 갱신 전망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유럽 재정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이 엔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무라이본드의 발행이 크게 늘어 2011년 중 동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.
 - 톰슨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들어 사무라이본드의 발행 건수가 64건에 달하여 역대 최대치였던 2008년 65건을 올해 중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.
 - 금융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채권발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라이본드의 발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자금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.

- 2011년 9월 말 기준 사무라이본드의 총 발행액은 1조 6,700억 엔으로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% 증가했으며, 사상 최대였던 2008년 1조 8,900억 엔에 근접하고 있음.
 - 2011년 8월 말 기준 국가별 발행액은 호주가 4,234억 엔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한국 2,450억 엔, 영국 2,050억 엔, 터키 1,811억 엔, 미국 1,800억 엔 규모 순인 것으로 나타남.
 - 일본의 한 매체는 10월에 한국의 포스코가 414억 엔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한 데 이어 멕시코 통신회사와 북유럽 금융회사 등도 사무라이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발행 건수뿐만 아니라 발행 규모면에서도 올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.

-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자금조달처는 주로 유럽과 미국 금융시장이었으나,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본이 주요 자금조달처로 부상함.
 - 최근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많은 외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2011년 3/4분기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채권 발행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% 줄었고 유럽도 5% 이상 감소함.
 - 사무라이본드는 다른 외국 채권과 달리 일본 내에서 엔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고 동일 신용등급의 다른 일본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임.

(니혼게이자이신문 10/19, 로이타 10/20 뉴스 종합)